



2012 서울사진축제 (Seoul Photo Festival)

시민과 작가가 기록한 서울의 기억과 역사

2012 서울사진축제(Seoul Photo Festival)가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서울시청사, 서울역사박물관 등 서울 곳곳에서 펼쳐진다.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3회 서울사진축제는 본전시, 특별전, 시민워크숍, 시민강좌, 사진의 달, 사진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사진축제는 '마을공동체와 사진 아카이브'를 테마로 서울시민과 전국의 네티즌들이 수집하고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져 서울시민의 사진으로 서울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시민이 고이 간직해 온 앨범 속 사진들을 수집하고 선별해 구성한 본전시는 한 개인의 생애사와 가족사, 마을사와 지역사로 나누어 전시된다. 수집된 사진 중 500여 점의 사진은 한 개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서울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2 서울사진축제 (Seoul Photo Festival) 포스터

서울의 여가문화 가늠할 수 있는 박정분 씨 기념사진

광진구 광장동에서 5대째 살아온 박정분 씨의 기념사진은 한 가족의 삶의 여정과 함께 광진구의 변화상도 보여준다. 광진교를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은 그의 가족사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사료이기도 하다.

서울 시민의 앨범 속에 한 번쯤은 등장하는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소풍을 즐겼던 사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에게는 너무나 생소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그리운 기억이기도 하다. 더불어 서울의 여가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문화사적 사료가 되기도 한다.



박정분작_광진교 건너편 한강에서 친구들과 뒀던 나룻배 1956년경

여전히 신림동 지키는 의성 김씨 집성촌

지금의 서울대학교가 있는 지역이 조선시대 문인 자하 신위 선생의 호를 따라 자하동이라고 불렸고, 농업중심 지역이었으며, 의성 김씨의 집성촌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서울에도 여전히 집성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신림동을 지키는 의성 김씨 안국파의 제 15대 손 김윤기 씨의 기억과 앨범 속 사진들은 집성촌에 대한 추억과 역사적 사실을 증언한다.



김윤기작_관악산 성주암에서 바라본 의성김씨 집성촌 지하동 마을 (현 서울대학교 자리)

외국인의 눈으로 본 서울

이외에도 서울에 살았던 외국인들이 촬영한 사진도 볼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주둔 미군의 통역관이었던 존 오하라씨의 사진은 당시 그가 근무하던 미아리 근처 부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황량하고 드넓은 미아리 풍경은 전쟁 직후의 서울을 증언한다. 1970년대 청계천에 활빈교회를 세운 목사 노무라 모토유키씨가 남긴 사진은 외국인의 시선에 담긴 서울을 보여준다. 그의 사진은 젊은 작가 김문경과 안세권이 기록한 현대 청계천 사진과 함께 서울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천변 풍경의 역사를 한눈에 보게 한다.



노무라 모토유키작_서울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청계천

사진작가가 공들여 기록한 서울에 관한 기록

서울사진축제는 시민의 사진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다. 시민의 기록이 개인과 일상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역사 자료이지만, 서울이라는 지역성에 천착하여 열정적으로 서울을 기록해 온 사진작가들의 사진은 사진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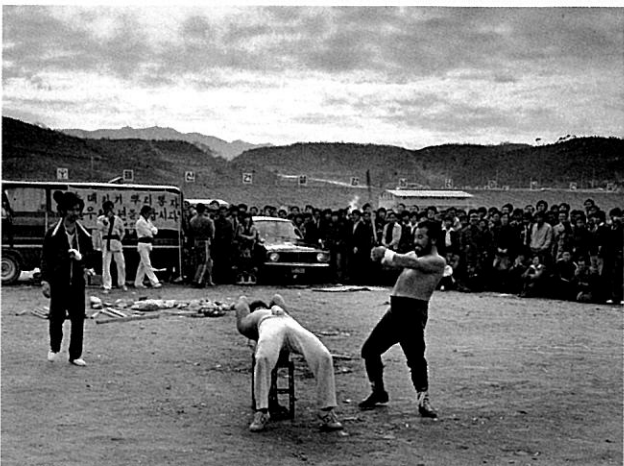
한정식 작가 서울 북촌서 나고 자라 자신의 어렸을 적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1970년대 북촌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

북촌의 한옥과 골목의 모습이 잔잔하고 서정적인 풍경으로 담겨 있어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한정식작

전민조 작가 개발 이전 강남을 다룬 작품들은 밭을 갈고 있는 소와 농부의 목가적인 모습이 이제 막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과 대조를 이루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호화로운 거리의 쇼윈도와 조명, 고층빌딩과 영어간판으로 가득 찬 지금의 강



전민조작

남만을 경험한 세대에게 전민조 작가의 사진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변화해온 과정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



조은작

사회학자 조은 사당동에서 만난 한 가족을 25년간이나 조사 연구해 온 사회학자 조은의 기록사진은 서울이라는 지금의 거대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 겪어야 했던 진통과 지난한 삶의 역사를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명동에서 사당동으로, 다시 상계동으로 강제 이주해야 했던 가난한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서울에서의 이주의 명암과 도시 확장의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그의 사진은 작가의 사진은 아니지만 서울의 확장사를 목격한 한 학자의 눈을 대변하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반성과 성찰의 공간을 제공한다.



김기찬작

김기찬 작가 서울의 사라져가는 골목길을 30여 년간이나 기록한 김기찬 작가의 사진은 서울의 골목길이 단순히 집과 집 사이의 길이 아니라, 이웃 간의 정과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담긴 매우 특별한 공간이었음을 상기하게 한다. 세월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과 노년으로 접어드는 골목사람들의 모습을 추적해 간 사진들은 삶에 대한 애잔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 외에도 도심 곳곳에 세워져 있는 동상과 사람들의 일상을 촬영한 전미숙의 우상의 자리를 비롯해 은평구 재개발 과정을 10년간 기록해 온 강홍구, 강남 테헤란로의 전체 조망을 통해 도시 경관을 보여주는 이득영, 항공촬영으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임선영, 임흥순 등 90년대 이후의 현대 사진가들의 서울 사진도 함께 전시돼 서울에 대한 시각을 연대기적으로, 공간적으로 배치했다.

시민 강좌, 워크숍 등 부대 프로그램 풍성

이번 축제에는 본전시, 특별전외에 사진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시민강좌 프로그램으로 △사진 인문학 : 기억 담론과 아카이브 △작가·프로젝트 리포트 : 마을 공동체와 지역 아카이브 △서울 신택리지 : 25개의 서울이야기 △쉽게 배우는 사진의 기술 등과 함께 시민워크숍 프로그램인 △어린이 사진캠프 : 기억이 많은 아이 △지역 답사 프로그램 등도 마련됐다.

사진인문학 강좌는 사진과 인문학의 만남을 통해 사진이 가능케 하는 역사와 문화 기술을 고찰한다. 마을과 기억, 개인과 공동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진 아카이브의 관계를 조망하며, 서울의 작은 한 지역에서 개인이 갖는 다양한 삶의 기억을 사진을 통해 되살려내고, 그것이 모여 집합의 기억, 즉 역사가 됨으로써 지역의 역사를 쓰게 하는 인문학적 과정을 고찰한다. 우리 시대 최고의 인문, 사회, 사진학 연구자와 예술비평가, 실천가들의 강연으로 구성되는 본 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의 경험이 역사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

를 얻는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기억을 구축케 하는 재현물로서 사진이 갖는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한다.

특히 민중생활사 연구단을 이끌었던 인류학자 박현수 단장(영남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과 함한희(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를 비롯해 사회학자 조은(동국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성미산 마을의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역사학자 전우용(서울은 깊다 저자)과 한옥 건축가인 조정구(구가도시건축 대표), 임상역사학의 지평을 열고 있는 이영남(풀무학교전공부 교사), 사진아카이브 연구자인 박영선(고등과학원 연구원), 사진 비평자이자 기획자 이영준(계원조형대학 교수), 군산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했던 김희진(대안공간 풀 디렉터), 통인시장살리기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예술기획자 윤현옥(AEC비릿핼 대표) 등 마을공동체와 아카이브, 기억과 역사, 도시와 사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실천을 보여준 인문, 사회, 예술계의 강연자들이 함께 한다.

이경민 서울사진축제 감독은 “이번 서울사진축제는 전문가와 특정 예술인에 의해 기록된 공식 기록과 역사에 의존한 축제가 아닌, 시민이 기록하고 간직해 온 개별역사와 기록을 바탕으로 새롭게 서울의 역사를 재구성해보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수집된 기록물들이 한 번의 전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지역의 생활사 연구와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고, 지역 정체성 형성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2 서울사진축제(Seoul Photo Festival)에 출품한 시민작가들의 작품들